DEGURR MARKET CLOSE · 데구르르의 마감시황

2026.09.01 (화) 장마감 · 0901 · 8월 수출 +68.7% · 반도체 466.5억弗 사상 최대 · 코스피 대금 19.20조 −30% · 합산 기간 최저 · 기타법인 9일 연속 · 누적 +13.40조

소급 확정 반영 (수급 브리핑·[2781]·예탁금, 20:00 통합)

사상 최대 수출에 지수는 +0.23%, 거래대금은 기간 최저 — 산 손은 이틀째 자사주뿐, 금리가 가르마를 탔다

아침에 8월 수출 982.5억달러(+68.7%), 반도체 466.5억달러(+209%)라는 사상 최대라는 역대급 숫자가 나왔다. 그런데 시장은 가장 조용했다 — 코스피 거래대금 19.20조(−30.3%)로 6월 이후 최저, 개인·외인·기관은 이틀 연속 모두 매도, 기타법인(자사주 추정)만 +1조6,657억. 미 10년물 4.75%와 국고채 전 구간 상승이 업종을 갈랐다: 대형 메모리·금융지주·SK그룹은 오르고, 부품·세트(LG이노텍 −8.10%)와 코스닥 성장주(시총 상위 11개 전부 하락, −1.56%)는 밀렸다. 어제 8/31의 "V자"는 이틀째 "자사주 단독 매수"라는 같은 구조 위에 있었다.

ⓒ 본 콘텐츠의 제작 및 모든 권리는 통불 주인장에게 있습니다.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사·전재·재배포 및 2차 가공을 금합니다.

코스피	코스닥	거래대금 (합산) · 당일 확정	기타법인	원/달러 · 미 10Y
6,835.80	821.25	23.86조	+1조6,657억	1,371.20
▲15.78 (+0.23%) · 저점 6,732.47	▼13.04 (−1.56%) · 시총 상위 11개 전부 하락	−27.5% · 합산 6/1 이후 최저 (코스피 19.20조 — 8/10 이후 최저)	9일 연속 — 3주째 −1조6,605억의 거울상	원화 소폭 약세 · 미 10년물 4.75% 부근

※ 소급 확정 반영(20:00): 수급 브리핑 마감판·[2781] 프로그램·[0785] 종목별·예탁금(신용 수신) — 프로그램·파생·종목별·예탁금을 확정치로 교체하고 정정 2건(코스피 대금 "20조 첫 하회" → 8/10 19.01조 이후 두 번째 / 기관 하이닉스 "매수" → −2,364 매도 축소)을 반영. 거래대금은 FnGuide 정규장 기준, 키움 통합(KRX+NXT) 집계는 병기. 미수신: [0797] 업종별·코스닥 개별(에스티팜·쿠팡·엘앤에프) 근사. 지수·수급·거래대금·OHLC는 장마감 확정치(FnGuide 지수추이). 환율 1,371.20은 전일 주간 마감(1,368.60) 대비 +2.6원 — 리포트 표기(−2.4원)는 비교 기준 상이.

MONEY FLOW · 나의 중심은 항상 돈의 흐름

이틀 연속 거울상 — 시장의 능동 주체 셋이 판 1.66조를 자사주가 또 그대로 받았다

8/31 −1조5,777억 ↔ +1조5,773억, 9/1 −1조6,605억 ↔ +1조6,657억. 그런데 오늘은 대금까지 기간 최저 — 자사주가 받쳐서 지수가 버틴 게 아니라, **자사주 말고는 아무도 크게 거래하지 않았다**는 뜻이 강하다. 외인·기관은 SK하이닉스·SK그룹·금융지주를 사고 삼성전자·부품·세트는 팔았다.

① 외국인

8월 중 7일 매도 · 선별은 SK와 금융

코스피 −4,867억 · 코스닥 −1,535억

확정 [0785]: SK하이닉스 +1,362 — 6일(−6.09조) 만 첫 순매수 + 하이닉스 ETF(KODEX +121·TIGER +89) / SK스퀘어 +670·SK이노 +504·SK +236·카카오 +306·POSCO홀딩스 +255·우리금융 +219·신한지주 +189·KT&G +136. 매도: 삼전 −1,871(이틀째)·삼성전기 −1,291·LG이노텍 −1,249·삼성SDI −726·LG전자 −652·한미반도체 −423·HLB −522·셀트리온 −368·에코프로 −284 — 어제 산 것(전기·이노텍·LG전자)을 하루 만에 되팜 "하루살이 매수" 3일째. 채널 합산(월 −6,309 통합·바스켓 −3,196·선물 −8,633) 외인 마이너스인데 하이닉스만 되사기 시작

② 기관

금투 −6,399억 단독 매도

코스피 −6,340억 · 코스닥 −2,748억

정정 [0785] 확정 기관 SK하이닉스 −2,364 매도(나흘째 축소)·삼전 −1,001 — 리포트의 "하이닉스 매수" 표기는 [0785]로 정정. 매수는 금융지주(신한 +334·하나 +253·삼성생명 +180·메리츠 +173, 시중에) · KODEX 레버리지 +491(1위)·인버스 −210 청산. 금투 −2,227·연기금 −200 이탈

③ 자사주 (기타법인)

9일 연속 · 이틀째 유일 매수

+1조6,657억 · 누적 +13.40조

공시 총량 55조(하이닉스 40조·삼전 15조)의 약 24% 소진. 정해진 한도 안에서 집행되는 물량 — 그 사이 다른 매수 주체가 들어오느냐가 문제

돈이 빠진 곳 ▼

- **IT 부품·세트** — LG이노텍 −8.10%(어제 +5.07% 반납하고 더) · LG전자 −4.62%(어제 +7.44%) · 삼성전기 −1.92%(4일 만 하락)
- **코스닥 성장주·바이오** — 펩트론 −9.66% · 에코프로 −4.49% · HLB −4.35% · 에코프로비엠 −3.81% · 알테오젠 −2.11% · 시총 상위 11개 전부 하락
- **삼성전자** +0.38%에 그침 — 사상 최대 수출에도 외인 매도 우위
- **2차전지 셀** — 삼성SDI −1.39% (선그로우 향 뉴스 미반영)

돈이 들어간 곳 ▲

- **SK그룹** — SK이노베이션 +7.81% · SK +7.52% · 삼성물산 +3.72% · SK스퀘어 +2.89% · SK하이닉스 +1.14% (ESS 1.5조 · SK온 연간 목표 45%)
- **금융지주** — 메리츠 +2.62% · 우리 +2.22% · 신한 +2.02% · 하나 +0.81% (장기금리 상승 → NIM + 환원 기대)
- **코스닥 개인** +4,338억 — 낙폭 과대 종목 받았으나 지수 방어 실패

SECTION 00

전일 대비 —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이 나빠졌나

좋아진 것

- **8월 수출 사상 최대 확인** — 982.5억弗 +68.7%(역대 3위, 석 달 연속 900억), 반도체 466.5억弗 +209% 월간 최대, 비중 47.5%, 반도체 제외도 +20%
- **무역수지 +347.5억弗** — 석 달 연속 300억 상회
- **장중 역전 4번째** — 갭 −35.7p를 장중 +51.5p가 뒤집음, 저점 6,732.47(−1.28%)에서 +103p
- **breadth 균형 복귀** — 449:423, 상승 비율 49.2%(어제 40.1%): 압축이 풀려 균형으로
- **ESS 재료 이틀째 확인** — SK이노베이션 +7.81% 연속, 계약 1건이 SK온 연간 ESS 목표의 45%
- **금융지주 재부상** — 외인·기관 동시 선별 매수, 방어 업종 역할
- **VKOSPI ≈44.5** — 사이클 최저 갱신

나빠진 것

- **거래대금 기간 최저** — 합산 23.86조(−27.5%), 코스피 19.20조(−30.3%): 역대급 숫자의 날에 6/1 이후 최저. 5일 이평 23.83→22.85 하루 만 재하락
- **자사주 단독 매수 이틀째** — 3주째 전 주체 매도 반복. "자발적 매수 수요가 없다"는 뜻
- **수출 호재가 투톱에 미지근** — 삼전 +0.38%(외인 매도)·하이닉스 +1.14%: 사상 최대가 '부합' 대접 = 이미 반영
- **수출→부품·장비 확산 실패** — LG이노텍 −8.10% 등 IT부품·세트 급락, 반도체 온기가 밸류체인으로 안 번짐
- **코스닥 −1.56%, 시총 11위까지 전부 하락** — 8월 +15.9% 승자의 첫 본격 조정, 외인·기관 동반 매도
- **금리 전 구간 상승** — 미 10Y 4.75% 부근 + 국고채 전 구간↑(유가 물가 + 내년 예산안 국채 공급 + WGBI 유입 지연)
- **WTI 87弗** — 85弗 안착을 넘어 상승 지속, 금 4,430弗 하락

한 줄 판정: 오늘은 "좋은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 시장"의 표본이다. 사상 최대 수출은 3분기 메모리 실적을 미리 확인시켜 줬지만 시세는 이미 그 값을 치러 놓은 상태였고, 금리(10Y 4.75%)가 그 위에서 '지금 돈 버는 곳(메모리·금융)'과 '미래 돈 벌 곳(부품·성장주·바이오)'의 가르마를 탔다. 지수 +0.23%는 자사주가 만든 숫자이고, 대금 19조는 시장의 진짜 온도다.

전일(8/31) 관전 포인트 판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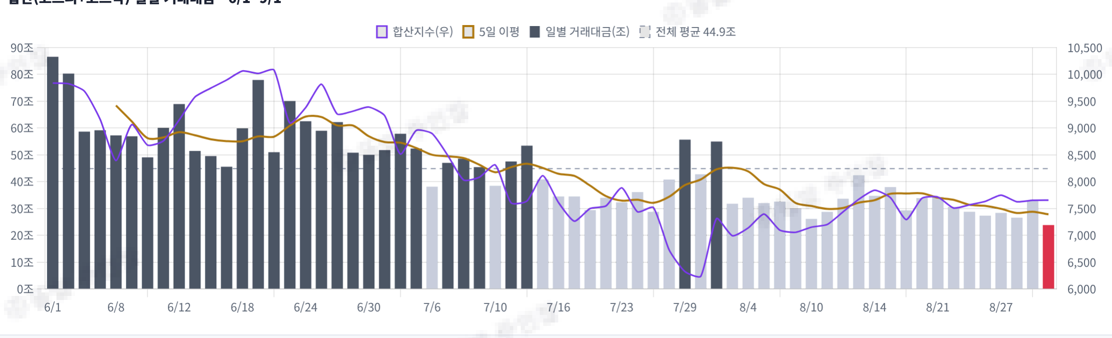
① 8월 반도체 수출 재점 — 숫자 사상 최대 466.5억弗 +209%·비중 47.5% / 시세 부합함 삼전 +0.38%(외인 매도)·하이닉스 +1.14% · 8/1~20 +198.8%로 눈높이가 이미 최대치라 '확인 프리미엄' 없음. 확실성 법칙 5번째 표본의 변형: 기대를 충족해도 기대가 이미 최대치면 갈 이유가 없다
② 자사주 vs 외인 매도 복귀 — 미해결 3주째 전 주체 매도 이틀째, 기타법인 +1조6,657억(거울상 반복)
③ breadth 50% 복귀 — 근접 449/912 = 49.2%, 상승 우위 449:423 — 압축은 풀렸으나 확산은 아님
④ ESS 후속 — SK 라인 SK이노 +7.81% 이틀째 확산 / 셀·소재 SDI −1.39%(선그로우 미반영)·에코프로 −4.49% — 재료는 SK온 라인에만, 업종 추세로는 미확산
⑤ 코스피 대금 20조 이상 — 미달 19.20조, 5일 이평 재하락 — 급감의 착시
⑥ WTI 85 안착·9월 금리 인상 확률 — 악화 WTI 87弗·미 10Y 4.75% — 금리 축이 오늘 하락 업종을 결정
⑦ [이월] 비차익·[0797]·예탁금 소급 — 에스티팜·쿠팡·엘앤에프(미수신) · 현대차 소각 실행 공시

SECTION 01

거래대금 — 역대급 뉴스의 날, 기간 최저 대금

결정적 증거: 합산 23.86조는 6/1 이후 64거래일 중 최저(종전 8/10 26.14조)이고, 코스피 19.20조는 8/10(19.01조) 이후 최저 — 20조 하회는 두 번째(정정 초판 "첫 하회" 표기 수정). 52주 평균의 67%·백분위 28%, 코스닥 4.66조는 백분위 2%. 어제 27.54조로 "6일 만의 25조 회복"이라던 판정은 하루짜리였다 — 어제 대금은 급락 저점의 외인 매도+자사주 매수였고, 오늘 대금은 '아무도 안 움직인' 대금이다. **사상 최대 수출 발표일이 기간 최저 대금일**이라는 조합 자체가 오늘의 결론: 시장은 이 뉴스를 이미 다 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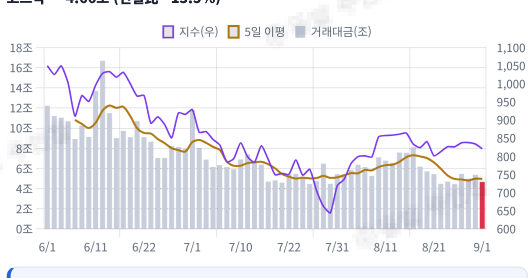
합산(코스피+코스닥) 일별 거래대금 · 6/1~9/1



코스피 — 19.20조 (전일比 −30.3%)

8월 평균 25.8조의 74%. 5일 이평 23.83→22.85조로 어제의 '첫 상승 전환'을 하루 만에 반납. 판정 기준(5일 이평 우상향)은 다시 미충족 — 다음 판정선은 내일 23조 이상.

코스닥 — 4.66조 (전일比 −13.5%)



비중 19.5%로 반등했지만 분모(코스피)가 30% 줄어든 착시. 절대 금액은 5조 아래로, 시총 상위 11개 전부 하락한 날의 대금 감소 = 투매 아닌 회피(8/28형). 개인 +4,338억이 유일한 받는 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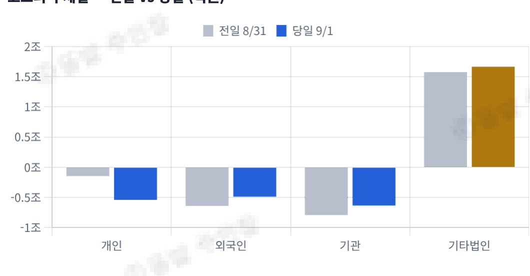
구간	합산 평균	코스피	코스닥	코스닥 비중
6월	60.4조	50.3조	10.0조	16.6%
7월	43.0조	36.9조	6.1조	14.2%
8월 (확정)	31.8조	25.8조	6.0조	18.9%
9/1 (당일)	23.86조 −27.5% · 기간 최저	19.20조 −30.3%	4.66조 −13.5%	19.5%

전체 평균 44.9조 · 기간 최저 갱신 9/1 23.86조(종전 8/10 26.14조) · 5일 이평: 합산 27.84조 / 코스피 22.85조(↓) / 코스닥 4.99조 — 판정 기준: 코스피 5일 이평 우상향 여부(하루 만 재하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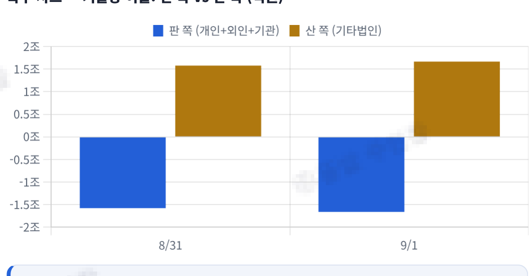
SECTION 02

수급 — 거울상 이틀째, 그리고 대금이 말하는 것

코스피 주체별 — 전일 vs 당일 (억원)



특수 차트 — 거울상 이틀: 판 쪽 vs 산 쪽 (억원)



8/31: −15,777 ↔ +15,773 (4억 차) / 9/1: **−16,605 ↔ +16,657** (52억 차). 이틀 연속 능동 주체 셋이 판 만큼을 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받았다. 오늘은 대금까지 최저라 자사주의 시장 점유율은 어제보다 더 커졌다.

구분	전일 (8/31)	당일 (9/1)	변화
코스피 외국인	−6,402	−4,867	매도 지속 8월 중 7일 — SK·금융 선별 매수 / 삼성·부품 매도
코스피 개인	−1,453	−5,398	매도 확대 이틀째 — 코스닥으로 이동(+4,338)
코스피 기관	−7,922	−6,340	매도 지속 금투 −6,399 단독(사모 +98 전환)
코스피 기타법인	+15,773	+16,657	9일 연속 누적 +13.40조 · 이틀째 유일 매수
코스닥 개인	+2,533	+4,338	확대 낙폭 과대 종목 받음 — 혼자 받는 구조로는 반등 어려움
코스닥 외국인	−551	−1,535	확대 바이오·성장주 이탈
코스닥 기관	−2,014	−2,748	확대 금투 −2,227·연기금 −200

기관별 상세 (억원, 확정)

주체	코스피	코스닥
금융투자	−6,399	−2,227
투신(일반)	+140	−166
보험	−231	−19
연기금등	−146	−200
은행	+25	−15
기타금융	+174	−2
사모펀드	+98	−120
기타법인	+16,657	−75

해석

① **기관 −6,340억의 실체 = 금투 −6,399억.** 어제 사모 −5,231억이 원전·전력기기를 팔았다면, 오늘은 금투(프로그램·LP 헤지)가 팔았고 사모는 +98억으로 멈췄다. 리포트의 비차익 언급은 없지만 금투 단독 매도 패턴은 8/31의 '바스켓 축소' 연장으로 읽힌다 — [2781] 소급 대기.

② **외인·기관은 금융지주에서만 겹쳤고, 하이닉스에서 갈렸다.** 정정 [0785] 확정 — 외인은 하이닉스를 6일 만에 되샀고(+1,362) 기관은 나흘째 팔았다(−2,364, 축소). 둘이 같이 판 건 삼전·삼성전기·LG이노텍·LG전자(어제 산 것 되팔기). 자발적 매수 목록 = 외인 SK 라인+하이닉스 / 기관 금융지주+레버리지 ETF — 여전히 좁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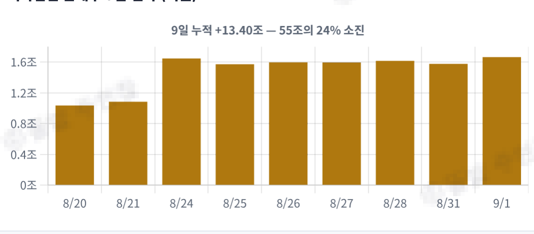
②-1 **예탁금 회복 (8/28 기준):** 소급 99.81조(**+3조1,048억**) — 이틀 −5.8조 이탈의 절반이 하루에 돌아왔고 신용 33.34조(+90억)로 빚투 증가 정지, 미수 0.93조(−930억), 선물예수금 41.38조. 8/25 세운 "현금↓빚↑" 경고는 해제 — 단 신용은 33조 위. 돌아온 돈의 행선지는 코스닥(개인 통합 +5,237, 8/21 이후 최대)인데 코스닥 대금은 −13%·지수 −1.56% = "잔돈 회전".

③ **자사주 총량 점검.** (집계 병기: 키움 통합 20:00 기준 개인 −3,184·외인 −6,309·기관 −6,995 = −1조6,488 ↔ 기타법인 +16,516, 누적 13.31조 — 거울상 구조는 두 집계에서 동일. 8/28 외인은 정규장 −1조7,586 vs 통합 −8,548(시간외 블록 +9,036 포함) — "복귀 무산"은 정규장 기준 판정으로 유지, 통합 기준으론 절반 강도.) 공시 55조(하이닉스 40조 8/20~11/19·삼전 15조 8/24~11/21) 중 9일 누적 13.40조 ≈ 24% 소진. 하루 1.6조 페이스면 잔여 약 26거래일 — 10월 초·중순이면 하이닉스 40조가 먼저 바닥날 수 있다. "정해진 한도 안의 물량"이라는 점이 이 버팀목의 시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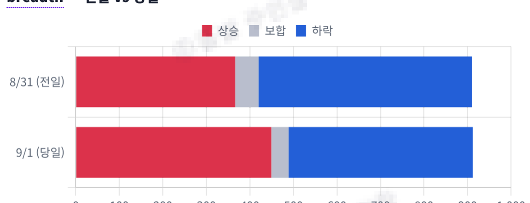
프로그램 매매 (차익/비차익)

소급 확정 **외인 비차익(바스켓) −3,196억 — 사흘째 매도(8/28·8/31·9/1)** · 차익 −783억(전일 −2,409억 이어 추가) · 코스닥 외인 바스켓 −2,311억(8/21 이후 최대 매도). 8/31 판정 ③ "바스켓형"이 확정됐고 오늘도 같은 성격 — **금투 −6,399억의 실체는 프로그램 바스켓 축소.** 단 기관은 개별 종목을 팔면서 KODEX 레버리지 +491억(기관 매수 1위)·인버스 −210억 청산·선물 +7,365 = 지수 상방 상품은 이틀째 담는 중: "종목은 왕복, 방향 상품은 롱".

기타법인 순매수 9일 연속 (억원)



breadth — 전일 vs 당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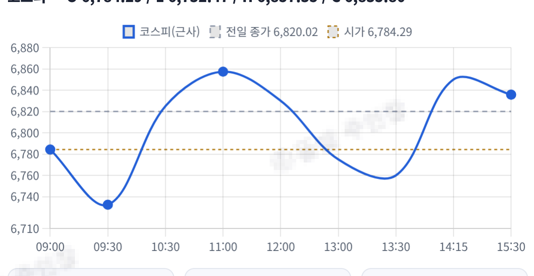
breadth는 균형(449:423), 그러나 코스닥은 686:955. 코스피 안에서는 어제의 압축(366:490)이 풀렸지만, 시장 전체로 보면 상승 1,135 vs 하락 1,378 — 하락 우위. 금리가 '지금 이익'(대형 메모리·금융)과 '미래 이익'(부품·성장주·바이오)의 가르마를 탔고, 코스닥은 후자 쪽에 몰려 있다.

SECTION 03

장중 궤적 — 네 번째 역전, 그러나 오르락내리락의 하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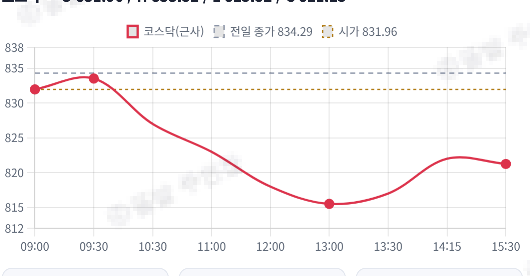
갭 분해: 코스피 +15.78p = **갭 −35.73p + 장중 +51.51p** — 장중 역전 4번째(8/21·25·31·9/1). 저점 6,732.47(−87.6p, −1.28%)에서 +103p, 고점 6,857.35(+37.3p)까지 갔다가 되밀린 뒤 재상승 — 8/31의 매끈한 V자와 달리 오전 저점→오전 고점→오후 재하락→막판 반등의 W형. 코스닥 −13.04p = 갭 −2.33p + **장중 −10.71p** — 시가가 고가권, 종일 우하향 후 막판 +5.7p 복원.

코스피 — O 6,784.29 / L 6,732.47 / H 6,857.35 / C 6,835.8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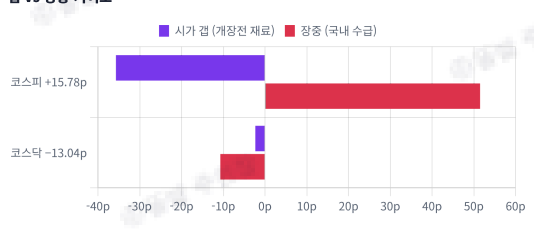
09:00~09:30	10:30~12:00	13:00~15:30
6,784.29 → 6,732.47 저점	6,857.35 고점	6,760 → 6,835.80
미 10Y 4.75%·미장 혼조에 약세 출발, 수출 지표에도 매도 우선	수출 사상 최대 소화 + SK그룹·금융 매수로 오전 고점 — 이후 되밀림	오후 재하락 후 자사주·하이닉스 매수로 막판 반등, 강보합 마감

코스닥 — O 831.96 / H 833.52 / L 815.52 / C 821.25



09:00	10:00~13:00	14:00~15:30
831.96 시가 ≒ 고가	815.52 저점	821.25
출발이 최고점 — 이후 회복 없음	바이오·성장주 차익 + 외인·기관 동반 매도, 시총 11위 전부 하락	개인 저가 매수로 소폭 복원 — 반등 주도 업종 부재

갭 vs 장중 기여도



장중 역전 4연속 (코스피)

일자	시가 갭	장중	저점	비고
8/21	−92.6	+153.0	—	첫 역전
8/25	−161.0	+206.8	6,408.82	V자 · 저점 재시험
8/31	−175.3	+206.4	6,547.76	최대 갭 V자
9/1	−35.7	+51.5	6,732.47	W형 · 저점 4단 상향(+185p)

저점 6,400.81 → 6,408.82 → 6,547.76 → **6,732.47**: 나흘째 저점 높이기. 단 오늘의 역전은 갭이 작아(−35.7p) 의미가 8/31보다 약하고, 대금 19조 위의 역전이라 신뢰도는 낮다.

SECTION 04

섹터 인과 지도 — 오늘의 동인 3개

총평: 동인은 셋 — **수출**(호재이나 선반영)·**ESS**(SK그룹 재평가)·**금리**(전 구간 상승). 앞의 둘이 상승 업종을, 셋째가 하락 업종을 만들었다. 특히 금리는 반도체 안에서도 '완제품 메모리(수출 확인)'와 '부품·세트(미래 물량 기대)'를 갈랐다 — 어제 확인한 "이익의 시점" 규칙이 오늘은 같은 밸류체인 안에서 작동.

DRIVER 01 · 통계

8월 수출 사상 최대 — 그러나 '부합' 대접

- 982.5억弗 +68.7% · 반도체 466.5억弗 +209%(월간 최대, 비중 47.5%) · 컴퓨터 +419.5%(낸드 가격) · 무선통신 +21.2%
- 자동차 −29.8% · 선박 −45.9% — AI 인프라 품목과 비AI 품목의 격차
- 수출은 실적보다 먼저 나오는 숫자 = 3Q 메모리 실적 사전 확인

→ SK하이닉스 +1.14%(외인·기관 매수) · 삼성전자 +0.38%(외인 매도) — 지수 하단 방어, 추가 상승 동력은 아님

DRIVER 02 · 공시

ESS 1.5조가 SK그룹 재평가로 번졌다

- SK온–네오볼타 9GWh ≈ 1.5조 = 올해 SK온 ESS 수주 목표의 45%
- EV용으로 쥐어둔 라인을 ESS로 돌리면 가동률↑·수익성↑ — SK이노베이션의 가장 크게 반응
- SK·SK스퀘어: 자회사 실적 회복 + 자사주 소각 + 비핵심 자산 매각 가능성

→ SK이노베이션 +7.81% · SK +7.52% · SK스퀘어 +2.89% — 코스피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SK그룹이 만듦

DRIVER 03 · 금리

10Y 4.75% + 국고채 전 구간 상승 = 가르마

- 미래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↑ → 현금흐름이 먼 회사부터 하락
- 국내 요인: 유가 물가 우려 + 내년 예산안 국채 공급 증가 + WGBI 편입 유입 지연(4~11월 8단계) = 장기물 부담
- 수혜: 은행 NIM — 외인·기관 금융지주 선별 매수

→ 하락: LG이노텍 −8.10% · LG전자 −4.62% · 삼성전기 −1.92% · 코스닥 성장주·바이오 / 상승: 메리츠 +2.62% · 우리 +2.22% · 신한 +2.0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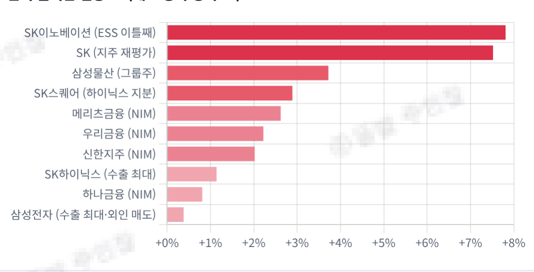
업종/그룹	대표 등락	확인된 이유	근거
SK그룹	+1.1~+7.8%	SK온 ESS 계약(목표 45%) → 라인 전환 수익성 + 지주 재평가(소각·자산 매각)	공시
금융지주	+0.8~+2.6%	장기금리 상승 NIM 개선 + 배당·소각 환원 기대, 외인·기관 선별 매수	금리
반도체 대형주	+0.4~+1.1%	8월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확인 — 단 선반영으로 반응 제한. [0785]: 하이닉스 외인 +1,362(6일 만 첫 순매수) vs 기관 −2,364 / 삼전 외인 −1,871·기관 −1,001 동반 매도	통계
삼성물산	+3.72%	그룹주 강세 동반 — 개별 뉴스 미확인	정황
IT 부품·세트	−1.9~−8.1%	금리 상승 차익 + 외인 매도 — 어제 급등(LG전자 +7.44·이노텍 +5.07) 되감김, 수출 온기 미확산	금리·수급
코스닥 바이오·성장주	−2.1~−9.7%	이익 미발생 기업일수록 할인율 민감 — 외인·기관 동반 매도, 시총 11위 전부 하락	금리
2차전지 셀·소재	−1.4~−4.5%	ESS 재료가 SK온 라인에만 국한 — SDI(선그로우 미반영)·에코프로 차익	수급

근거 등급: 정책·공시·실적·보도로 직접 확인 / 수급·정황만 있고 개별 뉴스 없음 / 이유 미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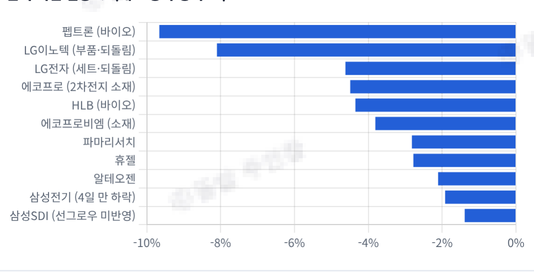
SECTION 05

섹터 자금 지도 — 유입과 이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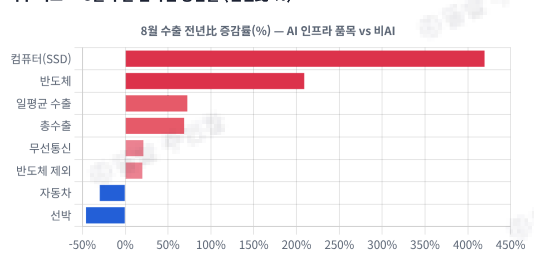
돈이 들어간 업종 ▲ (대표 종목 등락 %)



돈이 빠진 업종 ▼ (대표 종목 등락 %)



특수 차트 — 8월 수출 품목별 증감률 (전년比 %)



8월 수출 스코어보드

항목	수치	비고
총수출	982.5억弗 (+68.7%)	역대 3위 · 석 달 연속 900억 상회
일평균 수출	44.7억弗 (+72.5%)	조업일수 보정
반도체	466.5억弗 (+209%)	월간 사상 최대 · 비중 47.5% · 석 달 연속 400억
반도체 제외	+20%	나머지 품목도 동반 증가
무역수지	+347.5억弗	석 달 연속 300억 상회
1~8월 누적	6,933억弗	9월 중 작년 1년치 초과 전망

수출의 절반이 반도체 한 품목 — 지수가 삼성의 기분이듯, 수출도 메모리의 기분. 자동차 −29.8%·선박 −45.9%는 AI 인프라 밖 경기의 온도.

주도 섹터 판정: 이틀 연속 주도는 '실적이 지금 잡히는 곳' — 어제 반도체·2차전지, 오늘 SK그룹·금융지주·하이닉스. AI 3축 중 반도체(완제품)만 남고 배터리는 SK 라인으로 축소, 전력은 이틀째 부재. 닷새 연속 주도 교체(원전·건설 → AI 3축 → 소비재·금융 → 반도체·2차전지 → SK·금융)는 회전이 아니라 **주도주 부재**의 다른 표현이다.

한 줄 요약: 오늘 지도의 펜은 미 10년물 4.75%가 쥐었고, 색칠은 SK온의 1.5조가 했다 — 사상 최대 수출은 배경 음악이었을 뿐, 시장은 그 노래를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다.

SECTION 06

두각 종목 — 최근 2일 내 개별 뉴스

코스피

종목	등락	개별 뉴스 / 주제
SK이노베이션	+7.81%	8/31~9/1 SK온 ESS 1.5조(연간 목표 45%) — 이틀 연속(+7.18 → +7.81), 외인·기관 동시 매수
SK	+7.52%	9/1 자회사 실적 회복 + 자사주 소각·비핵심 자산 매각 기대 — 외인 매수
삼성물산	+3.72%	직접 뉴스 없음 그룹주 동반
SK스퀘어	+2.89%	9/1 하이닉스 지분가치 + 환원 기대 — 외인·기관 동시
메리츠금융지주 · 우리금융	+2.62 / +2.22%	직접 뉴스 없음 장기금리 상승 NIM 기대 — 선별 매수
SK하이닉스	+1.14%	9/1 반도체 수출 466.5억弗 사상 최대 — **외인 +1,362 6일(−6.09조) 만 첫 순매수**(+ETF) vs 기관 −2,364 매도 축소 (정정)
삼성전자	+0.38%	9/1 같은 수출 호재에 외인 −1,871·기관 −1,001 동반 매도 — 하이닉스와 차별화
LG이노텍 · LG전자	−8.10 / −4.62%	9/1 어제 외인이 산 것(LG전자 +694·이노텍 +577)을 하루 만에 되팜(−652·−1,249) — 뉴스 없는 급등의 되돌림, "하루살이 매수" 3일째

코스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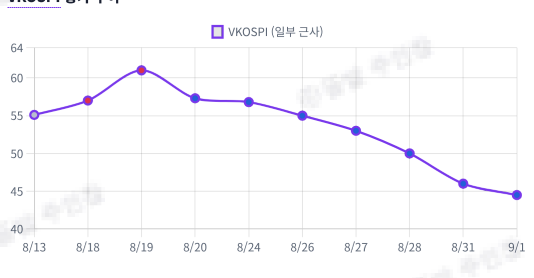
종목	등락	개별 뉴스 / 주제
펩트론	−9.66%	직접 뉴스 없음 바이오 차익 — 금리 민감 성장주
에코프로 · 에코프로비엠	−4.49 / −3.81%	9/1 ESS 재료 미확산 — 2차전지 소재 차익
HLB	−4.35%	직접 뉴스 없음 이틀 연속 하락
알테오젠	−2.11%	8/31~ 마일스톤 호재에도 이틀 연속 하락
에스티팜 · 쿠팡 · 엘앤에프	미수신	급등주 익일 검증·ESS 소재 반응 자료 미수신 — 이월
상한가	3종목 / 하한 1	종목명 자료 미수신 ([0785] 수신 시 소급)

어제의 '뉴스 없는 급등'이 오늘 되돌려졌다. LG이노텍(+5.07 → −8.10)·LG전자(+7.44 → −4.62)는 어제 두각 종목표에 '직접 뉴스 없음'으로 적었던 종목들이다. 반면 뉴스가 있는 SK이노베이션(ESS 계약)은 이틀 연속 +7%대. 8/28 세운 기준 — **뉴스 없는 급등은 익일 수급으로 검증** — 이 하루 만에 양방향으로 확인됐다.

SECTION 07

파생 포지션 & 변동성

VKOSPI 종가 추이



포지션 판독 (누적, 만기 9/10 · 차트 판독 근사)

소급 확정 ① **지수선물: 외인 −8,633 매도 전환** — 닷새 매수(+3.39조) 종료, 하루에 25% 청산. 미결제 155,736(−1,033) 5일 증가 후 첫 감소, 기관 +7,365이 인수. 원장 누적(8/10 기점) +2조5,234억. 8/25 이후 "현물 매도·선물 유지"라는 유일한 상방 신호가 오늘 소멸 — 단 진앙 종목 하이닉스는 되매수(+1,362): 어느 가설에도 딱 맞지 않는 혼합 신호. 판정 규칙: 하이닉스 외인 이틀 연속이면 "종목 되매수로 갈아타는 중", 선물 매도 지속이면 "헤지 청산 + 단발".

①-1 **베이시스 +2.85 정상 복귀** — 전일 −4.00은 월말 동시호가 왜곡으로 확정(대금 27.5→19.2조가 방증). K200 +0.32% > 코스피 +0.23%. **야간선물 1,049.70(−2.64%)** — 미 나스닥 선물 −1.17%를 받아 급락 마감: 내일 갭다운 출발 시 "3주째 매도 + 자사주 원툼" 구조의 첫 스트레스 테스트.

② **옵션:** 콜 외인 ≈+38억 유지(어제 청산분 그대로) · 풋 ≈+135 → +160억 소폭 재확대 — 칼라를 풀었던 손이 하방만 살짝 다시 걸었다. 기관 풋 ≈−100억. 방향 베팅이라기보다 만기 전 정리 국면.

③ **VKOSPI 44.03(−4.39%, 확정) — 사이클 최저 갱신.** 8/19 61 → 44.5. 코스닥 −1.56%·대금 최저의 날에도 변동성은 내려갔다 — 파생 시장은 '움직임 없음'을 정확히 가격에 반영 중. 만기 주간(9/10) 진입 전 최저 변동성이라는 점은 양날: 안정이기도, 되될 여지이기도.

SECTION 08

매크로 · 원자재

원/달러

1,371.20

전일 주간 마감(1,368.60) 대비 **+2.6원 소폭 약세**. 유가·미 장기금리 동반 상승은 원화 약세 압력이지만 달러인덱스가 99선 초반으로 내려와 압력이 제한 — 1,370원대 유지로 '환전 이탈 아님' 물증은 나흘째 유효.

국고채 · 미 10Y

전 구간 ↑

미 10년물 4.75% 부근. 국내는 ①유가發 물가 우려 ②내년 예산안의 국채 발행 증가 ③WGBI 편입 자금 유입이 기대보다 더딘 상황 = "살 사람은 예상만큼 안 늘고 팔 물량은 는다" → 장기물 금리 상승. 금융주엔 우호, 성장주엔 부담.

유가 · 금

WTI $87

85弗 안착을 넘어 **87弗 부근** — 미·이란 공격 교환, 호르무즈 원유 수송 차질 가능성 지속 반영. 유가→물가→금리 고리가 오늘 하락 업종의 출발점. 금은 **$4,430** 부근 보합 — 지정학 안전자산 수요 vs 미 장기금리 상승 상충. 휘발유 가격 상승은 중간선거 앞 트럼프 행정부 부담 → 유가 안정 대책 관찰.

SECTION 09

핵심 쟁점 — 오늘의 본질 4가지

① 좋은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 시장 — 확실성 법칙의 변형

8월 들어 네 번 확인한 법칙은 "기대 대비 미달 시 되감김"이었다. 오늘은 반대 방향의 표본: 반도체 수출이 기대(8/1~20 +198.8%)를 충족해 사상 최대가 나왔는데도 투톱은 +0.4~1.1%, 대금은 기간 최저. **기대가 이미 최대치면 충족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확인일 뿐이다.** 다음 촉매(브로드컴·3Q 실적)까지는 자사주가 하단, 선반영이 상단인 박스. **확인 지점: 하이닉스 외인 매수 지속 + 삼전 외인 매도 전환.**

② 자사주의 시한 — 13.4조 썼고 41.6조 남았다

9일 연속·누적 13.40조는 공시 55조의 24%. 하루 1.6조면 잔여 26거래일 — 하이닉스 40조는 10월 초·중순에 먼저 소진될 수 있다. 이틀 연속 '유일한 매수'였던 이 손이 줄어들 때 누가 받는가가 9월 최대 질문. 오늘 외인·기관의 자발적 매수 목록은 SK그룹·금융지주, 그리고 [0785]로 확인된 하이닉스 외인 되매수 +1,362(6일 만)뿐이었다 — 이 되매수가 8/20식 스윙(+1.7조)의 시작인지 하루짜리인지가 자사주 시한의 답이 된다. **확인 지점: 자사주 없는 날의 투톱 방어력, 외인 코스피 순매수 전환.**

③ 금리의 가르마 — 같은 밸류체인 안에서도

어제는 섹터 간(메모리·ESS ↑ vs 전력기기 ↓), 오늘은 섹터 안(메모리 ↑ vs 부품·세트 ↓)에서 '이익의 시점'이 승패를 갈랐다. 사상 최대 수출이 장비·부품으로 안 번진 이유가 여기 있다 — 부품·세트는 아직 '물량 기대'이고 메모리는 '수출 확인'이다. 국고채 전 구간 상승(예산안 공급 +WGBI 지연)은 국내 요인이라 미 금리가 진정돼도 남는다. **확인 지점: 이번 주 미 고용(금 +58K 예상)·국고 10년 방향.**

④ 코스닥 — 승자의 첫 조정, 개인 혼자 받는 구조

8월 +15.9%로 코스피(+3.4%)를 압도한 코스닥이 시총 상위 11개 전부 하락(−1.56%). 외인·기관이 동시에 팔고 개인 +4,338억이 혼자 받았다 — 이 구조로는 반등이 어렵고, 반등을 이끌 주도 업종도 없다.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은 시장이라 미 10Y 4.75%가 내려오기 전까지 변동성 관리 국면. **확인 지점: 외인·기관 코스닥 동반 순매수 첫날.**

SECTION 10

주요 뉴스

해외 · 반도체

- **중국 CXMT**, HBM3E 소량 생산·현지 AI 반도체 업체와 테스트 — 한 세대 뒤지만 자체 HBM을 자국 AI 칩에 붙이기 시작한 신호
- **엔트로픽**, 엔비디아가 투자한 람다와 350억弗 클라우드 계약 — AI 모델사의 연산 인프라 선확보 경쟁
- **엔비디아**, 미디어텍에 35억弗 전환사채 — NVLink Fusion 기반 맞춤형 AI 가속기 생태계 확장
- **노바티스**, 임상 중 사망 3명으로 세포치료 후보 임상 8/22 중단 — 고위험 세포치료제 규제 강화 가능성
- **쉬인**, 홍콩 상장 첫날 주가 −10% — 17억弗 조달, 소액 수입품 관세·물류비·성장 둔화

국내 정책 · 경제

- **8월 수출** 982.5억弗 +68.7%, 반도체 466.5억弗 사상 최대, 무역수지 +347.5억弗
- **산업통상부**, 2027~2031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착수 — R&D·소부장·인력·클러스터를 담는 첫 법정 5년 계획, 연말 확정 → 예산·정책 5년 포괄, 소부장 중장기 재료
- **국고채 금리 전 구간 상승** — 내년 예산안 국채 공급 증가 + WGBI 편입 자금 유입 지연

기업 · 수급

- **SK온**–네오볼타 9GWh ESS 계약 ≈ 1.5조 = 올해 ESS 수주 목표의 45% — EV 라인의 ESS 전환 가동률·수익성 기대
- **삼성전자·SK하이닉스** 자사주 매입 9일째 — 기타법인 +1조6,657억, 3주째 매도 전량 흡수
- **금융지주** — 장기금리 상승 NIM + 배당·소각 환원 기대, 외인·기관 선별 매수

SECTION 11

관전 포인트

다음 핵심 이벤트 심층 — 브로드컴 실적 (9/2 수 장후 · 국내 9/3 아침)

지난주 마벨은 실적을 넘기고도 '계약 매출 인식 시점' 때문에 급락했다. 엔비디아(마진)·마벨(매출 인식)에 이어 AI 마진 논쟁의 다음 시험대다.

시나리오	국내 영향
AI 매출·가이던스 상회 + 마진 유지	AI 인프라 수요 재확인 → 하이닉스 외인 매수 연장, 선행 상단 시험. 부품·장비로 온기가 번지는지 확인
상회하나 인식 시점·마진 숙제	마벨 패턴 반복 — 숫자는 좋은데 주가는 하락. 국내 반도체는 자사주 하단에서 횡보, 부품·세트 추가 조정
가이던스 미달	AI 마진 논쟁 격화 → SOX 조정 → 국내 투톱도 자사주 하단 시험, 8/31 저점 6,547 방어의 검증

해석 기준: 매출 절대치보다 AI 반도체 매출 인식 시점과 GM 방향. 사상 최대 수출이 '부합'이었듯, 브로드컴도 눈높이가 이미 높다.

가장 중요한 확인 지표 (다음 판 판정 기준):

① 자사주 외 매수 주체 — 3주째 동반 매도 3일째 여부, 외인 순매수 전환 ("자사주 없이도 버티는가" 3일차) · 야간선물 −2.64% 갭다운 시 자사주 원툼의 첫 스트레스 테스트
①-1 하이닉스 외인 되매수 이틀째 — +1,362가 8/20식 스윙의 시작인지 단발인지: 이틀 연속이면 "종목 되매수로 갈아타는 중", 선물 매도 지속이면 "헤지 청산 + 단발". 기관 하이닉스 매도 축소 지속 여부
② 거래대금 회복 — 코스피 23조 이상(5일 이평 22.85 위) · 기간 최저 경신 여부
③ 수출→부품·장비 확산 — 삼성전기·LG이노텍 반등 + 소부장 반응(반도체 5년 계획 포함)
④ ESS 3일차 — SK이노 +7%×2 후 과속 검증 · SDI 선그로우 반영 · 소재(에코프로) 반등 여부
⑤ 코스닥 외인·기관 동반 매도 첫날 — 개인 단독 매수 구조 지속, 시총 상위 반락
⑥ 금리·유가 — 미 ISM·JOLTS 반응, 10Y 4.75% 방향 · WTI 87 · 국고 10년
⑦ 브로드컴 (9/3 아침 체결) — 3분기 시나리오 + 마벨 패턴 반복 여부
⑧ 개인 코스닥 받기 3일째 — 지속 여부
⑨ [이월] [0797] 업종별 / 에스티팜·쿠팡 / 현대차 소각 공시 / 8월 물가·GDP

확인 일정

일정	내용
오늘 밤 ★	미 ISM 제조업 · JOLTS 구인 — 워시 "물가 우선" 이후 첫 실물 지표 / 애플 신임 CEO 취임 · Dell 실적
9/2 (수)	ADP 민간고용 · 브로드컴 실적(장후)
9/3 (목)	ISM 비제조업
9/4 (금) ★	미 8월 고용보고서 — 신규 고용 예상 +58,000. 강하면 인상 확률↑·성장주 압박 지속, 약하면 압력 해소
수시	미·이란 충돌 강도·호르무즈 / 트럼프 유가 안정 대책(중간선거) / 수급 소급분(비차익 8/26~9/1·[0785]·예탁금)

ⓒ 본 콘텐츠의 제작 및 모든 권리는 통불 주인장에게 있습니다.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사·전재·재배포 및 2차 가공을 금합니다. 본 콘텐츠는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기준: 지수·수급·거래대금·OHLC는 2026-09-01 장마감 확정치(FnGuide 지수추이). 장중 궤적 곡선은 5분 차트 판독 + 공식 OHLC 고정점의 근사. 파생 누적·VKOSPI는 리포트 차트 판독 근사. 프로그램(차익/비차익)·종목별(0785)은 20:00 수급 반영 확정 — 업종별(0797) 미수신. 환율 1,371.20은 주간 마감, 통합 마감 1,374.50(+6.50). [0797] 업종별·코스닥 개별 종목은 근사.